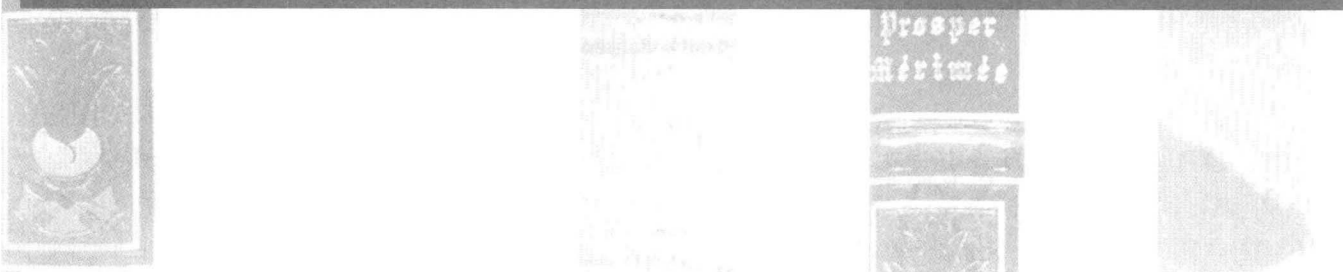


독서운동의 허와 실

권위적 양서 선정, 학교용 독서수업 등 문제

이용재_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나에게 책은 애물이다. 나의 애를 태우기도 하고 성가시게도 하지
 만 한편으로 사랑스러운 대상(愛物)이다. 나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마냥 좋아했고, 대
 학시절 선배나 친구의 방에 가면 그 사람의 책장부터 걸논질하며
 보았다. 내가 독서를 기피한 시절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이 되
 겠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입시지옥은 문학도였던 나에게도
 다가왔던 것이다. 대학에서 선생 노릇을 하며 사는 현재까지 나는
 책을 여전히 이고 지고 산다. 때문에 이사 때마다 자신뿐만 아니
 라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고생을 시킨다. 한편 나는 문헌정보학자
 이기에 도서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사랑의 염식을 키웠으며, 외국에서 잠시 살 때도 '도서관맛'을 보
 았다. 그래서 개인이 책을 소유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책에 대한 고질적인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 가끔 도서관에
 기증도 하지만, 아직 북크로싱(BookCrossing) 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
 였다.

공공도서관 부족이 큰 문제...사람들에게 '도서관맛' 느끼게 해야

기본적으로 나는 '도서관운동(Library Movement)'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도서관운동이란 도서관문화를 꽃피우는
 운동이다. 사람들이 10~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도서
 관을 세우고, 도서관에서 남녀노소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또한 작은 도서관들이 큰 도서관(구 단위 공공도서관)
 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운동이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의 도보권 내에 도서관이 있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도
 빌리고 동화구연(storytelling)도 듣고 비디오도 빌리는 것이 일상화되
 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서관맛'을 안다. 도서관맛을 아는 사

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친구들(Library Friends)'이 된다. 도서관
 의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도서관을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홍보도 하고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행정관청
 이나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도 '도서관맛'을
 맛보게 하고 싶다.

서산·순천·부산 등 '원 북 원 시티' 운동에 주목...

미 시애틀서 처음 시작

최근 나는 '독서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구한말 이후 현재
 까지 이 땅의 박봉석, 엄대섭 등과 같은 선각자와 도서관운동가들
 이 다각도로 도서관운동을 해왔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
 구하고 이 땅에서 도서관문화는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
 리나라 도서관은 '민중의 대학(People's College)'으로서의 도서관이 아
 니라 여전히 각자의 책으로 시험공부를 하는 '거대한 독서실'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도서관운동뿐만
 아니라 독서운동도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독서운동의 온화한
 기운이 도서관문화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

그러나 나는 독서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껏해야 올해 5월 출범한 '원 북 원 부산 운동(One Book One
 Busan)'의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원 북 원 부산
 운동은 말 그대로 '원 북 원 시티 운동(One Book One City)'을 부산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원 북 원 시티 운동은 한 도시에서 한 책을 정하
 여 일정 기간 읽고 토론하지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워싱턴 센터가 주관한 '만약 온 시애틀 시민
 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프로젝

트에서 비롯되었다. 시애틀에서 한 책을 통한 한 도시의 토론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이 독서운동은 200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된 'One Book, One Chicago' 운동에서 '한 책 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도서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미국 50개 주의 300여 개 지역사회와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원 북 원 시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이후 서산, 순천, 부산 등에서 이 운동이 시도되고 있다.

권위적 양서 권장, 계도적 차원의 독서운동 '독서기피증' 확산

서구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장애와 암초가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서구 선진국에서는 잘 발달하여 있는 공공도서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서구의 경우, 도서관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으며 도서관 장서가 주제별로 잘 개발되어 있고 도서관에 남녀 노소를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서가 주도적으로 '원 북 원 시티' '북스타트BookStart'와 같은 독서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도서관이 사회 속에 있으며 사회와 함께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의미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독서운동 중 상당수는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진부한 차원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단순히 "책을 읽자"라고 계도적 차원에서 독서를 강요하거나 구태의연한 독서목록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각급 행정관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시민과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상의 하달식으로 독서운동을 펼치거나 권위적인(?) 학술기관에서 양서 良書 위주의 독서목록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결과는 독서강국을 이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독서기피증을 확산시켰다고 하면 과언일까?

입시지옥도 문제...유별난 교육열 역이용한 독서운동 타진

끝으로 이 땅의 독서운동이 가지는 치명적인 장애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이것은 모두가 알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이야기이다. 이 땅의 독서운동은 거대한 블랙홀 같은 이러한 입시지옥을 상대하여야 하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초보 독서운동가인 나에게는 묘수가 없다. 앞으로 부딪치고 깨질 뿐이다. 아마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책따세)' '어린이도서연구회' 등과 같은 건강한 독서운동단체에 상당한 희망을 건다. 이러한 단체는 독서와 관련된 공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독서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한다. 소중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 독서운동은 다양한 문화기획력을 필요로 한다. 독서를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서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독서의 욕망을 자극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장애는 어쩌면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입시와 독서실 현상을 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열을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교사, 교수, 출판인, 문인, 사서, 학부모 등이 힘을 합하여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목록을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책을 점차 멀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을 책으로만 느끼게 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합하여 문화기획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양한 문화기획, 당국과 언론의 도움도 필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앞으로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독서운동이 행정관청이나 학교 현장, 그리고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운동이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관과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말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펼치는 연출을 통하여 내밀한 개인적 행위인 독서가 공동체문화에 기여하는 토론문화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문**